〈논　　문〉

'法'字考
－法象徵學과 관련하여－

崔　　鍾　　庫*

Ⅰ. 序　　論

지식인의 척도는 자기가 쓰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법률가는 굳이 법철학을 논하지 않더라도 '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서양에서는 법을 law(영), Recht(독), droit(불), diritto(이), pravo(러)라고 하는데,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한자어인 法이란 글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수(水)에 갈 거(去)가 한 글자이니 물이 가는 것처럼 공평한 것이라느니, 물처럼 순리적(順理的)인 것이라느니 하는 등의 그럴듯한 해석을 붙이기도 한다. 필자도 20여 년전 법대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 소박하고 주관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이 글자는 略字이고 正字는 灋이라는 글자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였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 그리고 명색이 법학교수가 되어 15년을 가르친 지금도 이 灋字의 뜻을 바르게 考證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리 속 한 구석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漢文의 古語에 관한 연구가 깊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반쯤은 체념하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필자가 근년에 법과 미술, 법의 상징에 관해 흥미를 갖게된 후,(1) 灋字의 구성요인 해태(廌)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금 法字의 語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불붙게 되었다. 문헌을 찾다보니 일찍이 일본학자에 의해 灋字 등 고대중국의 법제관계 문자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온 것이 발견되어,(2)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文學士'라고만 밝혀져 있는 이 일본학자는 古代 中國의 金石文을 연구하여 考古學上으로 語源을 연구하였다. 필자로서는 그런 수준을 도저히 따를 수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法字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의 연구업적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法字의

---

* 서울대 법대 교수, 法思想史

(1) 자세히는 최종고, 「정의의 상을 찾아서」, 서울대출판부, 1994 그리고 "법과 정의의 상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7권 1호, 1994.

(2) 後藤朝太郎, 支那古代に於ける法制經濟關係文字の解剖, 「國家學會雜誌」, 27卷 12號, 1913, 1766-1788면.

正體를 규명하려 노력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語源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필자의 근래의 관심인 法象徵學(Rechtssymbolik)으로서의 해태와 유니콘(unicorn)傳說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단지 法古事學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의미를 지닌 法哲學 내지 法思想으로서 우리의 '場'에 필요한 학문적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3)

II. 法이란 글자

法이란 글자는 前漢, 後漢 三國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고, 秦 및 先秦時代에는 번잡한 灋이란 글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래 이 글자의 古音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pop 또는 fap이었다고 생각된다.(4) 문헌상에 나타난 法이란 글자의 古義는 刑, 制度, 常規의 뜻을 가졌다. 예컨대 「尙書」 卷12, 呂刑에는, 苗氏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이라 하고, 「蔡傳」에 여기다 전설적 注釋을 붙여 설명하고 있다. 법을 刑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하다. 「禮記」 卷2, 曲禮에,

君子行禮, 不求變俗. 祭祀之禮, 居喪之服,

哭泣之位, 皆如其國之故謹修其法而審行之.

라고 하였다. 鄭玄의 注에는 법이란 그 先祖之制度, 즉 夏殷의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禮記」 卷6 月令에는,

乃命大史守典奉法. 司天日月星辰之行. 宿離不貸毋失經紀以初爲常.

이라 하였다. 周禮에 의하면 八法이란 官屬, 官職, 官聯, 官義, 官成, 官法, 官刑, 官計를 장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법은 制度, 官制와 같은 뜻으로 된다. 또 「爾雅釋詁」에 의하면 法은 常也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法의 古義는 律刑, 制度, 常規란 의미로 고대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law, 프랑스의 loi는 같은 라틴어 lex(←leg) 또 게르만어의 lag, lagh 즉 무엇을 놓는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또 중세기 영국의 Iurisdiction, 라틴어의 iurisdictio(正義의 집행)의 어원이 ius(정의), dictio(선언)라는 라틴어로 분해된다는 것을 볼 때,(5) 중국의 法이란 개념도 그 문자를 해부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참뜻이 드러나게 된다.

後漢代 以前에 사용된 灋字는 「說文解字」 卷13에 따르면 水部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豸部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이것을 3요소의 合字라고 보고 있으나 4요소의 合字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6) 「說文解字」 卷10, 本文 豸部 第4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

(3) 이 방면에 관하여는 최종고, 한국사상과 법철학, 「법철학과 사회철학」 제3호, 1993.

(4) 後藤朝太郎, 위 논문, 1764면

(5) Chaucer, *Canterbury Tales*, 6901.

(6) 後藤朝太郎, 위 논문, 1766면.

刑也平之如水, 從水. 廌所以觸不直者去之, 從廌去.

今文省

古文

즉 原字는 이것을 水와 廌와 去의 3요소의 合體文字로 보고 있지만, 隸書體 以後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篆書體의 문자는 과연 3요소로 되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周代의 古銅器 즉 鐘鼎彝尊 등의 銘에 나타난 古文을 참조하고 說文에 수록된 字體와 같은 일정한 典型을 이루기 以前의 상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法字의 3要素說에서는 去字를 한 요소로 본다. 古布幣文 및 說文에 따르면,(7) 去의 구조는 大와 厶의 合字로 보고 淸나라의 朱駿聲은 이것을 大와 와의 合字라고 보고, 大는 其蓋也, 象形 與蓋同意라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학자 高田忠周 씨도 厶盧는 飯器의 이름, 혹은 字笨이라고 보아 朱氏의 愚按이라는 說과 합치된다. 大는 蓋(뚜껑)의 형태이다. 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은 의 다른 글자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즉 去라는 글자의 해석으로 옳은 것이라 한다면, 法字의 해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릇(器)과 그 뚜껑(蓋)과의 合字로 보는 것도 器蓋 兩者의 크기의 비율이 몹시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法字 속의 去字는 그러한 飯器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說文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단지 離去의 뜻으로 보아 한 요소로 去字를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어떤 자(不直者)에게로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도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오히려 去字를 2요소로 분해하여 法字를 4요소로 合文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漢文 以前의 周代의 古銅器, 즉 鐘鼎彝器의 銘에 나타난 法字의 구조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할 것은 殷虛書契에 나타난 龜板文 속에는 아직 이것이 해당하는 文字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7) 「讀字詳解」 卷1, 128면.

法字의 古文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망라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4요소로 나뉘어진다.

첫째

이것은 廌(치)字의 古文으로 象形의 文字이다.

둘째 또는

이것은 大字 또는 立(位)字의 古文이다.

셋째 또는 또는 라고 쓰는 것은 口(입구)字의 모양이다.

넷째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水字의 古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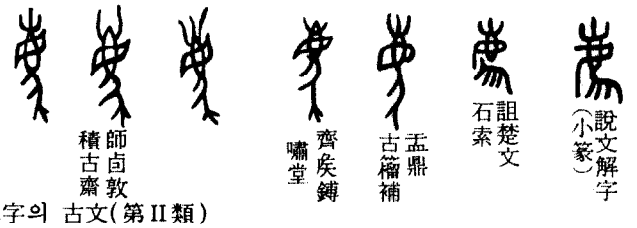
이 4요소 가운데 첫번째 豸는 항상 오른쪽에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運筆의 都合과 글자의 형태, 恰好를 위해서일 것이다. 이것에 관하여는 龜甲獸骨文字에 다른 類例가 있는데 후에 설명하겠다.

大字와 立字는 楷書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古文에서는 그 의미와 형태에서 차이가 없다. 水字가 大의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역시 별 의미가 없다. 口字가 첨가될 때에는 大字 아래에 쓰이는 것이 상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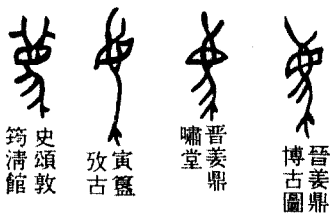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의 형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의미는 어떠한가? 이러한 의미들이 합쳐져 法字의 의미가 배태되는 것이 아닐까?

첫째, 廌(해태)란 무엇인가? 廌를 古銅器銘에서 따로 떼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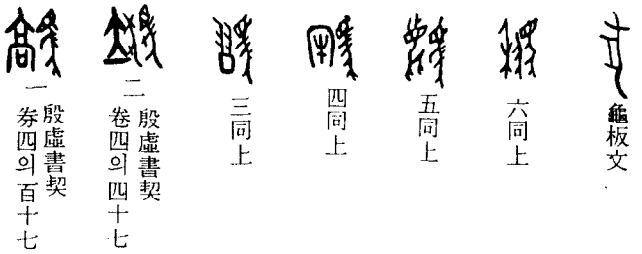
法字의 古文(第Ⅰ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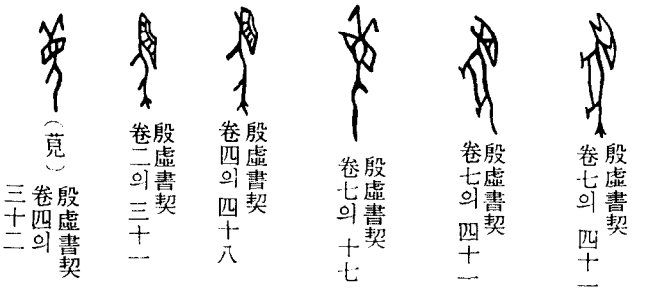
廌字의 古文(第Ⅱ類)



이 I類와 II類로 나눈다면, 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麃의 의미는 때로는 맹수(猛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질이 사납고 항상 공격적 태도를 가진 짐승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龜甲獸骨文字 속에 이것과 비슷한 예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글자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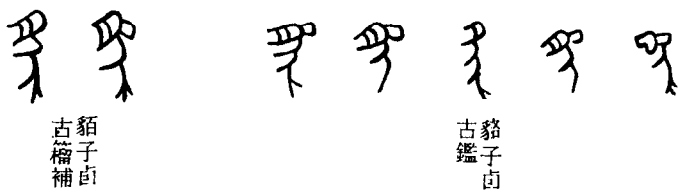
이들 문자는 周代에 이미 死字가 되었지만 周의 古銅器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또 이런 짐승에 가까운 형태를 가진 文字를 龜甲獸骨文字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法字의 古文에 포함되어 있는 짐승이 과연 이들 文字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象形에서 관찰해 보면 머리 위에 雙角이 있고 체구가 길며 긴 꼬리를 가졌다는 것이 나타난다. 古銅器銘에 나타난 大篆에는 鹿, 豸, 馬의 셋에 가장 가깝다.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보면,

첫째 鹿字의 모양

둘째 豸의 모양(豹豺)



셋째 馬의 모양

이들 자료에 따르면 法字의 古文 속의 鷹는 字形上으로 그 짐승의 象形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細部를 본다면 鷹의 머리는 鹿의 그것과 같고 꼬리는 말(馬)의 긴 꼬리에 가깝다. 즉 '鹿題馬尾'의 짐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後漢의 說文에 鷹는 豸(tai, chi)의 略形으로 산소(山牛)에 가까운 짐승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즉 解鷹(해치, 가이치)는 獸也似山牛一角, 古者沢訟令觸不直者. 從豸省 이라고 적혀 있다. 段玉裁는 玉篇, 廣韻, 太平御覽을 인용하여 산소(山牛)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소(牛)에 가깝다고 하였다. 字形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짐승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鷹가 豸이라는 것에 대하여 秦漢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던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豸는 첫째, 「說文」에는, 獸長脊. 行豸豸然欲有所伺殺形이라고 적혀 있다.

둘째, 「神異經」에는, 獬豸는 東北의 荒中의 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로 不直한 쪽에 触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바로 不正한 것을 咋한다고 적었다.

셋째, 王充의 「論衡」에는, 一角의 羊也, 性識有罪, 皐陶治獄有罪者令羊触之라고 적혔다.

넷째, 段玉裁는 말하기를 古有此神獸非必皐陶賴之聽獄也라 하였다.

豸가 곧 獬鷹, 獬豸라는 이러한 전설적 해석은 요컨대 獬豸를 裁判上에서 靈的인 짐승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의 法官의 正服에는 가슴에 圓形의 圖案으로 獬豸를 刺繡로 놓고, 중국 衙門의 正面衝立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後漢書 「輿服志」에도,

法官或謂之獬豸冠獬豸神羊能別曲直故以爲冠

이라고 적혀 있다. 漢代에 先秦의 古文 法字 속에서 이것을 본다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과학적 가치는 없겠지만 三才圖繪에 그려진 獬豸의 想像圖를 보면 다음과 같다.(8)

(8) 중국의 해태 상상도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그림은 北京의 紫禁城의 해태상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그림으로 본 해태와 유니콘", 「월간 미술」 1994년 11월호.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東望山有獬豸神獸也. 能觸邪狀始羊 一角四足. 王者獄訟乎則至. 說文云, 神人以獬豸遺黃帝帝曰何食何處. 曰食薦. 春夏處水澤秋冬處松柏. 一云似鹿一角. 能別曲直. 皐陶治獄其罪疑者令觸之. 故法冠有獬豸冠之名.(9)

그리고 「五雜俎」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皐陶之爲理. 神羊之力也. 後世如張釋之干定國. 無年佐之民自不冤. 豈不勝皐陶遠甚哉

그리고 계속 적기를,

諸獸中獨獬豸不經見. 一云, 卽神羊也. 然神羊見於神異經. 其言誕妄不足信. 攷歷代五行四夷志. 如麒麟獅子扶拔騶虞, 角端史不絶書. 而獬豸無聞焉. 則世固未嘗有比獸也. 自楚文王服獬豸冠而漢因之相治至令. 動以喻執法之臣亦無謂矣.(10)

그리고 「西陽雜俎續集」 卷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獬豸見鬪不直者觸之. 窮寄見鬪不直者咮之. 均是獸也. 其好惡不同. 故君子以獬豸爲冠. 小人以窮奇爲名.

해태의 想像圖에서 생각해 볼 몇 가지 사항으로 첫째, 머리와 몸체에 불꽃(火炎)을 달고 있는데, 그것은 漢代以後의 思想에 의해 날조된 것, 즉 神獸로서의 靈的 특색을 나타내는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神獸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想像이 부가되어 혹은 一角의 羊, 혹은 一角의 사슴, 혹은 一角의 山牛, 혹은 一角의 牛 등으로 一角이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짐승에게서 보는 雙角을 회피하여 黃帝에 결부시키며, 皐陶에 결부시키거나 秋冬後凋의 松柏에 결부시키는 전설적 修飾은 神獸를 한층 理想化시키려는 心理에 기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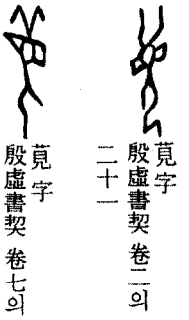
만일 「說文」의 해석과 같이 薦는 豸의 略形이라면 薦는 승냥이(豺狼, 산개)의 종류이다. 혹은 豹(표범 표, leopard), 貉(담비 학, racgn dog) 또 豻(들개 안), 貔(비후 비, 표범의 일종), 貙(소라소니추, 들고양이), 貊(담비 학, 여우종류), 貛(이리 환, 野猪)등에 공통인 일종의 사나운 짐승을 나타내고 있다. 「說文」에 豸字는 이것을 허리가 긴 짐승(長脊獸), 다리는 豸豸然(縮身)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豸가 法字의 古文에 나오는 薦와 형태가 같은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豸에는 뿔이 없는데 薦에는 반드시 뿔이 있다. 薦의 字形은 上半이 鹿字와 같다. 앞에서 본 第Ⅰ類에 든 薦의 古文은 鹿字와 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三才圖繪」에 따르면 양을 닮은 외뿔(似羊一角)의 짐승이다. 그러나 羊字가 문자상으로 나타나는 上代의 字形에 많은 형태가 있다.

---

(9) 「和漢三才圖會」 卷38.
(10) 「五雜俎」 卷9.

羊字의 古文

羴(山羊)字의 古文



「說文」에는 이 글자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山羊細角者從兎足讀若丸竇, 字從比라고 적혀 있다.

鷹는 뿔이 있는 짐승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羊, 山羊의 豸形과는 글자상으로 매우 다르다. 후에 墨子의 記事에는 부합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法字의 古文에서 논란할 때에는 鷹와 羊은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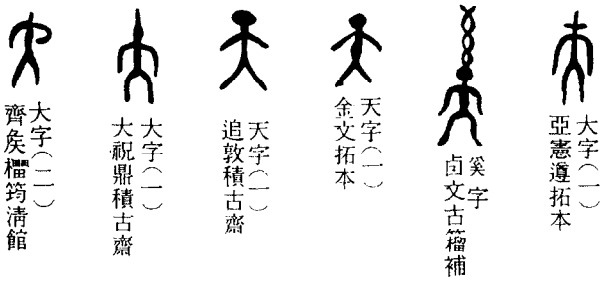
요컨대 先秦의 문헌에는 鷹라는 동물의 記事가 없고 漢代에 돌연 나타나 詩化되고 神秘的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것도 믿기에 충분하지 않다. 생각건대 上古 몽매한 시대에 혹은 鹿 혹은 牛, 혹은 羊 등을 사용한 여러 가지 神判의 방법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이 鷹字의 古文으로 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모양의 어떤 종류의 짐승도 실재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鷹는 文字上 이미 神獸를 나타내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구체적 실재를 추구한다는 것은 헛된 노력일 것이다.

大란 무엇인가?

즉 大字 및 立字는 모두 인간이 正面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의 象形이다. 立은 位字의 古文에 있었다.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法字의 古文에 「大」와 豸(鷹)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은 大(인간)를 피고인 또는 혐의자로 보고 만일 不直한 자일 때는 이 神獸로 하여금 맹진돌격하여 傷殺케 한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바름

(正義)의 상징인 豸(廌)로 하여금 우선 협의자의 마음 속을 통찰, 투시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大字가 人의 象形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글자들에서 볼 수 있다.



龜板文에는 이러한 글자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豸와 大와의 관계는 이와 같다면, 大字 아래의 口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口의 의미

口는 告한다는 뜻이다. 「說文解字」 및 「說文學者」는 거의 모두 이 大와 口를 「去」라는 一字를 이루는 것으로 해설한다. 「說文解字」 卷十 豸部에, 去는 人相違也라 하고, 段玉裁의 注에서 違는 離也人離 故從大 大者人也라 하였다. 또 「春秋莊」 四年條에는, 紀侯大去國이라 하였다. 「穀梁傳」에는 大去者 不遺一人之辭也라 하였다. 모두 大는 人이란 뜻이고 口는 告한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類例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吾字는 我의 自稱, 占字의 口는 卜으로 묻는다는 뜻, 告字의 口는 牛触人所以告人, 즉 牛와 口의 合字이다. 命字의 口는 人을 令하는 所以 즉 使役하는데 입(口)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法字의 古文속에 있는 口字의 의미도 역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口字는 후에 말하는 「墨子」 明鬼篇의 記事에 보다 잘 나타나는데, 口는 辭(「說文」에는 辭는 訟也라 하였다)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재판할 때 原被告 兩人이 각각 자기의 바름(直)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不直을 評하는 辭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口는 言辭란 뜻, 告한다는 뜻으로 보면 정당할 것이다.

水의 뜻

文字學에서 水字가 合體文字로 나타내는 개념은 여러 가지이다. 즉 公平(equity)이란 뜻, 淸淨이란 뜻, 灌注란 뜻, 水流란 뜻, 湛溢이란 뜻 등이 그것이다. 水와 관련된 옛 글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例에 의하여 水字의 用法은 대개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이들 가운데 法字의 해석에 적합한 것은 準字 속의 水이다. 「說文解字」 卷10에 말하기를 水는 準也라 하였다. 「釋名」에도 역시 水, 準也準 平物也라 하였고, 段玉裁도, 天下莫平於水. 故匠人建國必水地라 하였다. 일찍이 중국 上代에 水에 관한 개념은 清滌(禮記 曲禮), 透明(周禮, 周官), 潤下(書經 洪範易乾卦) 등의 범주에 걸친 것인데, 法字의 古文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平準이란 뜻이다. 그 廌가 正義를 나타내는데 동시에 그것은 公平, 平準을 나타내는 水의 상징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唐나라의 蘇鶚가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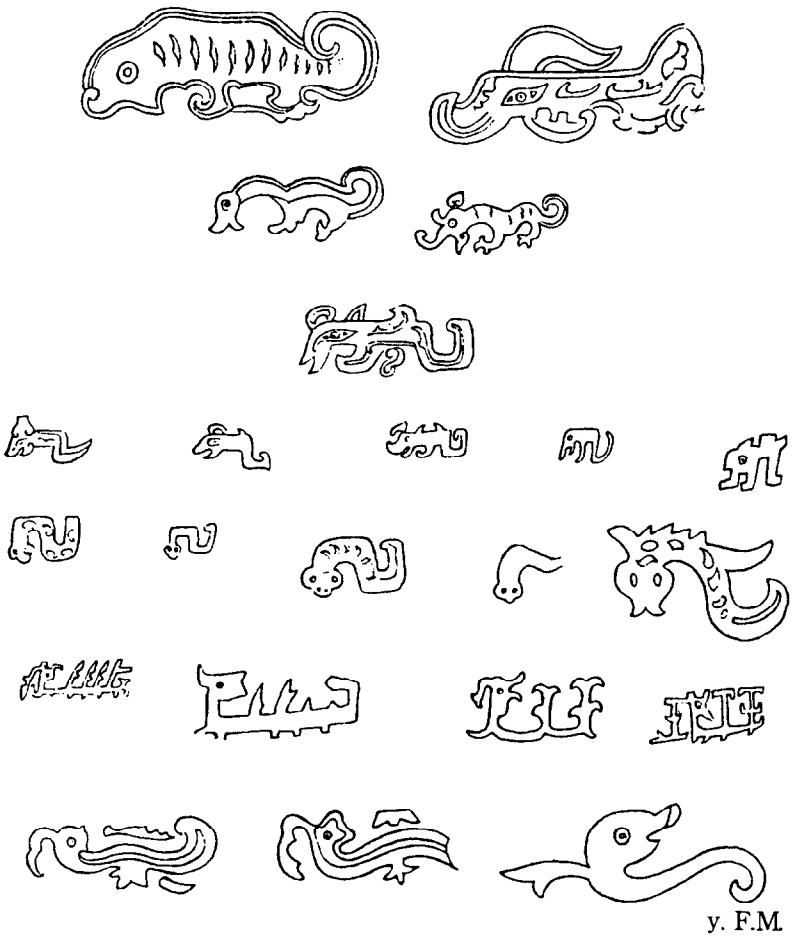
古文法字從豸從次非從廌也. 謂法律之正. 遂從於豸. 法律之平. 遂從於水. 卽廌豸明矣(「蘇氏演義」上)

라 하였다. 이로써 法字 속의 水는 어떤 뜻을 갖는가 분명해졌다.

以上 法字의 古文의 4요소는 한편으로 獸와 訴訟의 原被告와 그 소송의 主張과의 綜合으로 正義의 판결을 보이는, 즉 獸神判의 방법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 水로서 公平한 판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法」이란 正과 平 즉 justice와 equity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서양의 법철학 사상과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한편, 독일학자 게오르크 무트(Georg Friedrich Muth)의 연구서 「중국과 게르만의 원시적 동물장식의 양식원리」(*Stilprinzipien der primitiven Tierornamentik bei Chinesen und Germanen*, Leipzig, 1911)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銅器와 도자기 등류에는 아래와 같은 紋樣의 동물형상이 보인다. 무트 박사는 이것이 바로 해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비한 동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11)

(11) 그림 아래의 숫자에 따라 각 동물 형태의 출처 설명에 관하여는 Georg F. Muth, *Stilprinzipien der primitiven Tierornamentik bei Chinesen und Germanen*, R. Voigtländer Verlag, Leipzig 1911, Tafel S. 39.



y. F.M.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의 동물象形과 서양의 그것을 비교한다든지, 새로 중국의 古代 동물象形을 재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筆者로서는 엄두도 못낼 至難한 작업이겠고, 대체로 이 정도의 記錄에서 灋字와 관련된 해태의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III. 서양에서의 유니콘

일각수는 그리스어로는 모노케로스(Monokeros) 혹은 리노케로스(Rhinokeros)라 부르고, 라틴어로는 모노세로스(Monoceros) 혹은 우니코르니스(Unicornis)라고 불렀다. 영어로는 유니콘(Unicon), 독일어로는 아인호른(Einhorn), 프랑스어로는 리꼬르느(Licorne)라고 부른다. 이 우화적 동물은 인도와 중국의 외뿔의 코뿔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는데, 근세 초기까지도 그 실재(實在)에 대한 물음이 별로 제기되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4세기의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9~397)는 유니콘은 연구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동물의 종류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는 수마트라(Sumatra)의 거대한 코뿔소는 처녀성(處女城)에 있는 유니콘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유니콘 사냥에 관한 이야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형체학」(*Physiologus*)에 따른 유니콘은 작은 염소(Böckchen)과 비슷한 짐승이다. 조형미술에서는 그리스 삽화에서는 그것은 이마에서 솟아오르는 뿔을 가진 사슴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라틴어와 민간어 「형체학」 필사본에는 염소(Reh)나 산양(山羊, Ziegenböckchen) 정도의 크기로 곧고 나선형으로 꼬인 뿔을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뿔은 코뿔소(Narwal)의 떠받이 이빨(Stoßzahn)과 같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이 짐승은 최종적으로 외뿔을 가진 말(馬) 모양의 크기와 형체를 갖게 된다. 원래 사나운 이 짐승은 절대로 포수에게 잡히지 않지만 「형체학」(*Physiologus*)의 서술에 따르면 오직 처녀(Jungfrau)가 쓰다듬어주거나 달래주면 스스로 유순하게 잡혀주며 죽어주기까지 한다. 「형체학」과 기욤 르 클레르(Guillaume le Clerc)의 「신수론」(神獸論, *Bestiaire divini*, ca. 1210)에 따르면 유니콘은 처녀의 향기에 끌려 가슴에 입을 맞춘다. 유니콘이 처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문헌에만 국한된다.(12)

유니콘의 기원과 중세 이전(以前)의 역사는 Cervide와 무소(Nashorn)의 두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처녀에 의해서만 유니콘이 잡혀진다는 얘기는 기원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명 저자에 의해 편집된 「형체학」(*Physiologus*)라는 그리스어책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고대 인도(印度)의 전설에서 알레고리컬하게 변형된 것이다. 즉 인도에 한 외뿔을 가진 은자(隱子)가 그를 유혹하려는 공주(公主) 혹은 창녀가 처녀로 되었다는 외뿔의 동물을 잡는다는 얘기이다. 「형체학」의 알레고리에서 유니콘은 그리스도로, 처녀는 마리아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바뀐다. 이집트의 회화에는 여자가 무릎에 유니콘을, 등에 아이를 업고 있어 일종의 촉매(觸媒)로 역할하고 있다. 고대인도의 외뿔영양(羚羊)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미학적인 것은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 나타나고 있다.

> 은자 샤른가(Rsyáśrnga, 즉 외뿔)는 한 금욕자의 아들로서 날 때부터 뿔 하나를 달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숲속에 살았다. 신들이 노하여 비가 오지 아니하자 브라만들은 외뿔영양들을 왕궁에 데려오도록 하였다. 명단을 훑어보고 왕은 창녀(즉 불교의 사상에 의하면 왕의 딸 공주)를 은자들의 처소에 보냈다. 경험이 없는 은자는 공주를 하나의 어린 은자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손에 잡혀 왕궁으로 끌려갔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녀가 여자인줄 알았고, 그때 흡족한 비가 내렸다.(13)

슐링글로프(D. Schlingloff)와 하우크(W. Haug)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동물의 어른인 엔키두(Einkidu)가 이쉬타르(Ischtar)사원의 창녀에 의해 잡히는 이야기가 길가메쉬(Gilgamesch) 서사시에 적혀 있다고 한다. 슐링글

(12) Jürgen Einhorn, Einhorn, in: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d. 3, 1981. Sp. 1247.
(13) J. Einhorn, *ibid.*, S. 1247.

로프는 엔키두 이야기가 자니즘(Jainistisch)의 바수데바힌디(Vasudevahindi)의 우화를 거쳐 제2단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14)

서양과 동양의 상업적 연결과 동기변화가 종종 가미되어 이에 「피지올로구스」 책에도 진주, 인도석(石), 고래, 코끼리, 사슴, 불사조(不死鳥)같은 것들이 서술되어 있다.

코뿔 달린 짐승에 관하여는 기원전 398년 그리스의 의사 체시아스(Ktesias)의 책 「인디카」(*Indika*)에 처음 등장하며 기원전 300년경의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의 같은 제목의 책에도 언급되었다.

인도 당나귀(indischer Esel)는, 체시아에 따르면, 말보다 크며 희고 예리한 이마뿔을 갖고 있다. 독(毒)에 대한 구제수단이며, 간질병과 위궤양을 고쳐주며 가루로 가공될 수 있다. 강한 순발력이 비상한 속도를 낼 수 있게 한다. 젊은이에게만은 엎드려 순종하지만 그러나 결코 산채로 잡히지는 않는다. 메가스테네스에 의하면 인도인들이 카르타존(Kartazon)이라고 부르는 일각수는 크기가 말 정도이고, 머리는 사슴과 같으며, 발은 코끼리와 같고, 두 눈 사이에 예리한 뿔이 나있고, 크게 울리는 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을 끌며 혼자 돌아다니는데 교미기(交尾期)에만 죽일 수 있다. 다 큰 짐승은 한번도 잡힌 일이 없고, 새끼를 왕궁에 데려온 일이 있을 뿐이다.(15)

플리니우스(Plinius)는 「자연사」(*Naturalis historia* 11. 255)에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동물론」(*De patribus animalium* 3. 2)을 언급하면서 체시아스(Ktesias)에까지 소급한다. 또 클라우디우스 아엘리아누스(Claudius Aelianus)는 「동물성질론」(*De natura animalium*, 4. 52)에서 크레시아스와 메가스테네스에게 연관시킨다. 솔리누스(Solinus)는 「희귀동물집성」(*Collectanea rerum memorabilium*, 52. 39-40)에서 다시 플리니우스를 따르고 있고, 아엘리아누스와 솔리누스의 설명은 중세 백과사전적 문헌, 특히 토마스 칸티프라타누스(Thomas Cantipratanus), 바르톨로메우스 앙글리쿠스(Bartholomäus Anglicus), 빈센트 드 보베(Vicent de Beauvais)의 문헌에 수용되었다. 메가테네스, 플리니우스, 아엘리아누스, 솔리누스는 현상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을 코뿔소와 혼동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에 대해 독특한 서술을 하였다. 플리누스와 솔리누스는 코끼리와 씨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체시아스에서는 인도의 코뿔소가 기저(基底)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전통과는 달리 중국·일본·한국에도 일각수가 일찍부터 알려졌는데, 그것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짐승으로 종종 해태(獬)와 기린(麒麟)으로 불렸다. 오늘날에도 베트남에서는 일각수 탈춤이 타이(Tay), 능(Nung), 카오(Cao)지방의 산간주민들에게서 행

(14) D. Schlingloff, Die Einhorn-Legende, in : *Christiana Albertina* : Kieler Universitäts- Zeitschrift 11, 1971, S. 51-64.

(15) F. Jacoby(ed), *Die Fragmente der griechischen Historiker* 3, C. 1, Leiden 1958, S. 505.

해지고 있다.(16)

성서에서도 「70인 역본」(Septuaginta)의 희랍어 번역자들이 어쩌면 고대적 서술들의 인상 아래 히브리어 르엠(rēem), 앗시리아어 리무(rimu)를 일각수 아우에로크스(Auerochs)로 번역한 데에서 나타난다. 민수기 23장 22절, 24장 8절, 신명기 33장 17절, 욥기 39장 9절, 시편 21장 22절, 28장 6절, 77장 69절, 91장 11절에 일각수가 등장한다. 일각수가 바빌론의 외뿔 숫소의 묘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부정된다.(17)

교부(敎父)들은 일각수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미표상으로 나타낸다. 그것은 예언자, 유태인, 그리스도인(유일신의 신봉자)을 의미하고, 신앙의 유일성을 나타내며 사악한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나타낸다. 시편 95편 5절에는 "뿔을 세우지 말라"고 적었다. 동기(動起)의 역사로 보아 가장 큰 의미는 그레고리대왕(Gregor der Groβe)의 「욥의 덕」(*Moralia in Job*, 31, 35)와 이시도르 폰 세빌라(Isidor von Sevilla)의 「어원론」(*Etymologiarum liber* 12. 2)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처음으로 고대의 전통과 성서적 표현을 연결시키고 400년경에 라틴어로 기록된 「피지올로구스」(*Phygiologus*)에 수록되었고, 위에 언급한 백과사전들 외에도 알렉산더 넥캄(Alexander Neckam),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요하네스 아 산 제미니아노(Johannes a San Geminiano), 브루네토 라티니(Brunetto Latini), 체코 다스콜리(Cecco d'Ascoli)의 저서들에도 일각수사냥 얘기가 수록되었다. 라틴어본 「피지올로구스」에는 영적(靈的) 일각수인 그리스도가 유태인에게 잡힌 바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받게되었다는 부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각수에 관한 설화는 나아가 호노리우스 아우구스토두넨시스(Honorius Augustodunensis)의 「교회세계」(*Speculum ecclesiae*)에도 언급되었고, 교황의 예언, 지형(地形)측량, 여행기에서 고독하고 황량한 지방의 묘사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연애 서정시(Minnelyrik)와 연애담(Minnerede), 속담(Spruch)과 가요(Lied), 민간설화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필립 드 타온(Philippe de Thaon), 제르베즈(Gervaise), 기욤 르 클레르(Guillaume le Clerc), 리카르 드 푸니발(Richard de Fournival)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마리아찬양, 덕성과 악덕 복장에도 수줍음과 진실, 무절제, 분노, 용기, 그리고 때로는 악마의 의미로도 나타난다. 풍수학(Geomantik)과 점술서(Losbuch), 역서(曆書)와 작명술(作名術)에도 일각수가 등장한다. 긴뿔을 가진 쇠로 된 모욕마스크(Schandmaske)가 시그마링겐(Sigmaringen)에 있는 성(城)박물관(Schloβmuseum)에 존재한다.

탈무드(Talmud)에는 이 짐승이 방주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노의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동물이 방주의 바깥

(16) H. Frosch, *Zu Gast in andern Ländern*, Leipzig, 1978, S. 145.
(17) J. Einhorn, *ibid.*, S. 24-29.

에 묶어져 있어 때로는 물을 차갑게 만들었다는 전설로 연결된 듯하다. 폴란드, 소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설은 일각수가 오랫동안 해엄을 쳐서 화가 난 새들이 그 뿔위에 앉았고, 이 짐승 물 아래 잠겨있다고 기록하고 있다.(18) 1702년 메른(Mährn)의 안드레아스 글로레즈(Andreas Glorez)는 외뿔을 가진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점은 "그 속에 너무나 어여쁜 여자의 그림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19)

서사시에서는 일각수는 알렉산더 서사시의 「기적과 괴수」(*Mirabilia et Monstra*)에 연결되고, 알렉산더의 논적(Streitroβ) 부체팔루스(Bucephalus)도 종종 이마에 뿔을 가진 동물을 언급하고 있다. 람프레히트(Lamprecht)의 「알렉산더」(*Alexander*)에는 칸다키스(Kandakis) 여왕이 알렉산더왕에게 보낸 선물로서의 「일각수」(Monosceros)를 그리고 있는데 뿔을 가진 석류석(石榴析)으로 어쩌면 볼프람 폰 에쉔바흐(Wolfram von Eschenbach)의 「파르치발」(*Parzival*)이 같은 모티브에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짐승의 심장, 석류석이 안포르타스(Anfortas)왕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이 짐승의 치유력(治癒力)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힐데가르드 폰 빙겐(Hildegards von Bingen)의 「창조물변형론」(*Subtilitatum diversarum naturarum creaturarum*)에서 제시한 것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즉 그녀는 일각수 사냥의 이야기를 병리사(病理史)와 심리학적 동기로 설명하여 일각수의 간(肝)은 나병에 대한 치료제이고 일각수의 껍질로 만든 지갑과 신발은 페스트와 열병, 관절염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르치발」에서도 오르겔루제(Orgeluse)는 그녀의 병든 애인 치데가스트(Cidegast)를 "외뿔 가진 남자"(der triuwe ein monizirus)라고 불렀다. 볼프람은 이 짐승을 연애(Minne)와 결혼(Ehe)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표지(標識)로 보았다. 루돌프 폰 앰즈(Rudrolf von Ems)의 「세계연대기」(*Weltchronik*)과 요하네스 로테(Johannes Rothe)는 약 2세기전의 아헨의 고트샬크(Gottschalk von Aachen)에서처럼 다음과 같은 처녀성 시험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즉 일각수가 처녀를 시험(durchbohren)해 보고 적합하지 않으면 마크트(Magd)라 불렀다는 것이다. 「피지올로구스」의 영적 알레고리는 요한네스 폰 뷔르츠부르그(Johannes von Würzburg)의 후기 궁정연애소설 「오스트리아의 빌헬름」(*Wilhelm von Österreich*)에서 비신화화(非神話化)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슈트라스부르그의 고트프리트(Gottfrieds von Straβburg)의 「트리스탄」(*Tristan*)에 나타난 연애시(Minnegrotte)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일각수 사냥의 은유는 예컨대 「호르투스 콘클루수스」(Hortus conclusus)에서 뿔나팔을

---

(18) O. Dähnhardt, Beiträge zur vergleichende Sagenforschung, in: *Zeitschrift für Volkskunde* 16, 1906, S. 369-396.

(19) Andreas Glorez vor Mähm, Continuation der Vollständigen hause- und landbibliothec. Der ander theil, Regensburg 1702. Teilabdruck Insel- Bücherei 948, Ffm 1971.

든 가브리엘천사의 신적(神的) 결의(決議)에 따라 서너 마리의 개를 데리고 성처녀 마리아의 처소 안으로 몰아들어가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무대시설에서 이른바 "리티카치오 소로룸(*Litigatio sororum*)"을 단 영혼의 시(詩)와 천국의 유희를 볼 수 있게 한다.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핀더(V. Pinder)의 「장미관을 쓴 마리아의 정원」(*Beschlosse gart der rosencrantz Marie*, Nürnberg 505)에 나타난 "영적 해석"(geistliche auβlegung)이다. 그리고 민요와 신비한 문헌, 슬로바이아의 성령강림찬송(Adventlieder)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단화(祭壇畫)등에 나타나고 있다.

우화나 동물우화, 동화들에서는 일각수 사냥에 관하여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오히려 일각수의 사나움, 위험성, 자만성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우물이나 뒷간에 빠진 사람에 관한 우화 속에서 일각수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즐거운 소설」(*Gesta Romanorum*) 번역본에서는 일각수는 이브(Eva)와 마리아를 뜻하는 두 나체 처녀에 의하여 사로 잡히고 있다. 튀티히의 에그베르트(Egbert von Lüttich)의 「에크바시스 캅티비」(*Ecbasis captivi*)에서는 일각수가 "확실히 전통적으로 처녀에 대한 짝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간판위에 '처녀의 소리'(voce puellari)로 게시되었다."[20] 요하네스 드 쉐페야(Johannes de Schepeya)에 의해 편집된 이솝의 우화에서는 한 사자가 일각수의 안면 무기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자기의 병든 부인을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각수는 자신의 뿔을 주며 그것으로 행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의미는 적(敵)에게도 무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울리히 폰 포텐슈타인(Ulrich von Pottenstein)도 자신의 우화 「고상한 지혜의 서」(*Puech von der edlen weysheit*)에서 일각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뿔을 한 까마귀(Raben)가 바위에서부터 내려쪼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뿔은 깨어지고 까마귀는 교만한 일각수를 쪼아댄다.[21] 이러한 교훈은 마요노 데 마이네리(Mayno de Maineri)의 「피조물의 대화」(*Dialogus creaturarum*)에서도 발견된다. 이솝우화를 라틴어로 재구성한 캠브리지대학 총서에서는 일각수를 사자에 대항하도록 하여, 나무에 뿔을 쳐박고 죽게 하고 있다. 에드문드 스펜저(Edmund Spenser)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Shakespeare), 마틴 몬타누스(Martin Montanus)는 1557년의 「지름길」(Wegkürzter)를 거쳐 「용감한 재단사아가씨」(Tapferen Schneiderlein)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내용을 물려받고 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각수의 뿔이 치유력을 갖는다는 수많은 문헌적 증언은 체시아스와 아엘리아누스, 그리고 14세기의 「피지올로구스」 희랍어본으로 거슬러 올라

(20) K. Steckerced, *Ecbasis cuiusdam captivi per tropologiam*, Hannover 1935, S. 21, J. Einhorn *ibid.*, S. 1252에서 재인용.

(21) J. Einhorn, Der Bilderschmuck der Handschriften und Drucke zu Ulrichs von Pottenstein "Buch der Naturlicher Weisheit," in: *Verbum et Signum : FS. f. F. Ohly*, München 1975. S. 389-424, 403.

간다. 일각수들은 일단 뱀에 의해 독이 밴 바다의 물을 마시지만 그 뿔로 불 속에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이다.(22) 라벨레(Rabelais)도 그의 「판타그루엘」(Pantagruel)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일각수는 문학에서 정숙함이나 순진무구함의 상징으로, 경주(競走)의 동물로, 혹은 제약(製藥)을 뜻하는 문장(紋章)의 의미로 나타난다. 예컨대 세르반테스(Cervantes), 라 퐁텐느(La Fontaine), 로버트 버턴(Robert Burton), 아리오스토(Ariosto), 요하네스 피샤르트(Johannes Fischart), 오노레 두르페(Honoré d'Urfé), 볼테에르(Voltaire)에게서 그러하다. 또 호프만(E. T. A. Hoffmann)의 「작은 콧뿌리」(Klein Zacke)와 「브람빌라공주」(Prinzessin Brambilla), 아킴 폰 아르님(Achim von Arnim)의 「왕관의 파수꾼들」(Die Kronenwächter), 루이스 쿠페루스(Louis Couperus)의 「피데사」(Fidessa),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의 「말테 브리게의 수기」(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에서, 빠리의 클뤼니박물관(Musée Cluny)에 소장된 테피스트리 : 「부인과 일각수」(La Dame à la Licorne)에도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투르베르(James Thurber)의 동물 우화에도 나오고, 하이미토 폰 도데러(Heimito von Doderer)의 「소용돌이 호각소리」(Die Strudlhifstiege)와 「악마들」(Die Dämonen), 쿠르트 호호프(Curt Hohoff)의 「금지된 도시」(Die verbotene Stadt), 토마스 부하난(Thomas Buchanan)의 「유니콘」(The Unicorn), 마틴 발저(Martin Walser)의 「일각수」(Das Einhorn), 피터 비이겔(Peter S. Beagle)의 「마지막 일각수」(The Last Unicorn) 등에도 유니콘이 등장한다.(23) 그리고 어린이 책에도 유니콘이 계속 등장한다.(24) 스페인의 서민문학에 의해 멕시코에도 전파되어 일각수 사냥 이야기를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민간설화(Volkssagen)에서는 매우 희귀하다.

일각수의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놀랄 정도로 다의적 특징을 갖고 있다. 브루노 아스텐시스(Bruno Astensis)는 다른 동물들처럼 그것도 "좋은 뜻과 나쁜 뜻을 다 갖고 있는(*et bonam et malam significationem*)" 동물이라고 하였다.(25)그러나 그것은 매우 정신적(영혼적) 성격을 띤 동물로서는 훨씬 후일의 문헌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뿔은 원형적(原型的)—성기적(性器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증거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트리엔트공의회(1546~63)가 일각수 관념을 불쾌하게 금지시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26) 인상적인 것은 대체로 일각수에 관한 설명은

(22) R. Beer, *Einhron : Fabelwelt und wirklichkeit*, München 1972, S. 159-193.
(23) 이에 관해서는 Beer, *ibid.*, 1972; J. Einhorn, *ibid.*, 1976, S. 269.
(24) L. Tellheim(ed), *Das Jagd auf das Einhorn*, München 1969 : F. Mayröcker, Unikornisch, in: G. Middelhauve(ed), *Das Einhorn Sagt zum Zweihorn*, München 1977.
(25) MPL, 165, 957.
(26) J. Einhorn, *ibid.*, S. 264-269.

그림과 함께 이루어져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以上과 같은 서양에서의 일각수에 대한 우화를 종합해 보면,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교化되기 이전에 동양의 인도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뿔 하나 가진 이색적(exotic)인 짐승을 동양에서 전래받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마리아론과 그리스도론, 종말론과 결부시켜 신성하게 만든 것이다.(27)

Ⅳ. 중국에서의 해치

서양에서의 유니콘 전설은 그런데 그 근원이 중국과 인도에서 왔다고 한다.(28)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중세 동서양의 문화 내지 사상의 교섭이 일찍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이나 인도의 해치라는 전설적 동물이 서양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미리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해치설화를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국(戰國)시대 제(濟)나라 선왕(宣王)이 애자(艾子)를 불러, "옛날에 해치(澥豸)란 짐승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떤 짐승이냐?"고 물었다. 애자는 답하기를 "요순시대의 신수(神獸)이온데 조정 안에 살면서 신하들 가운데 사악한 행위를 하거나 사특한 마음을 먹은 자가 있으면 대들어 잡아먹어 버린다 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짐승이 있다면 따로이 먹이를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고 했다 한다.(29)

중국의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해태는 외뿔에 기린 머리, 양(羊)의 발톱, 푸른 비늘과 두툼한 꼬리가 달린 환상적 짐승으로 옳고 그름의 곡직(曲直)을 능히 판별하여 사악한 자나 부정한 자에게 대들어 물어뜯는다 하여 법수(法獸)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상상의 동물이었던만큼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붙어졌다. 해치(澥廌), 신양(神羊), 식죄(識罪, 죄가 있고 없음의 식별), 해타(獬駝) 등으로 불리었고, 우리 나라에서 보통 부르는 해태라는 말은 그 어원이 불분명하다.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이 물과 관련된 짐승으로 생각하다보니 해타(海駝)→해태로 된 것 같다.(30)

옛 문헌에 해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보면, 「논형」(論衡)의 시응편(是應篇)에, "개호(觟䚢)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뿔이 하나밖에 없으며 죄지은 사람을 찾아내는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 한다. 고요(皐陶)라는 사람이 순임금 때 법관으로 있었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때 이 양(羊)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받게 하였다. 죄가 있는 사람이면 뿔로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면 받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개호'란 해치의 다른 이름이고 또 「이물지」(異物志)에는, "동북지방의 거친 곳에 사는 짐승으로 이름을 해치라고 한다. 뿔이 하나에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올바르지 못한 사

(27) 일각수에 관해 더 자세하게는 최종고, 「정의의 상을 찾아서」, 서울대출판부, 1994.
(28) F. Cardini, Le Unicorn in Fact and Fancy, *Ulissess 2000* (Alitalia) No. 64, 1989, pp. 115-122.
(29) 「艾子雜說」, 이규태, 「욕심의 韓國學」(이규태코너 4), 기린원, 1987, 206면에서 재인용.
(30) 이규태, 위의 책, 143면.

람을 뿔로 받고 사람이 논란하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물어 뜯는다"고 하였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사헌부(司憲府)조에는, 무릇 관부의 제명(題名, 관리의 공적과 과오의 기록)이란 옛날부터 있던 것이니, 헌부(憲府)에 있어서는 관계가 더욱 중한 것이다. 지금부터 계속하여 해치관(獬豸冠)을 높이 쓰고 백필(白筆, 史官이 가지는 붓, 항상 사모에 비녀처럼 꽂았다)을 꽂고 앉아 누구는 어질었고 누구는 충성하였고 누구는 아첨하였고 누구는 간사하였다고 해서 착한 것은 법을 삼고 악한 것을 경계한다면 나라는 밝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양에서 해치는 법과 재판에 관련된 신수(神獸)이기 때문에 신의재판(神意裁判)에 관하여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의재판은 동양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서양과 근동 등 각 문화권에 다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노타르프(Notarp) 교수의 권위 있는 「神判(*Gottesurteil*)」이란 연구서가 있다.

중국의 周代, 春秋戰國시대에 재판방법의 하나로 獸神判을 행하고 있었다. 周時代 齊나라(지금의 山東省) 지방에 행해지던 것은 古代 中原의 각 지방에 행해지고 있던 풍습과 신앙의 한 단편이 남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墨子의 「明鬼篇」과 王充의 「論衡」을 시작으로 先秦, 漢魏의 사이에 奇神의 신앙이 매우 번성하였다. 爭鬪者 詛訟人의 獄을 끊고 이를 神社 앞에 데리고 와서 神獸의 피(血)을 먹게 하고(실제로 입술만 대게 한다) 그 社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후에 神獸로 하여금 曲直을 결정하게 하였다. 「墨子」 卷八 明鬼篇下 齊之春秋條에 王里國, 中里徼의 다툼에 관한 기록에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 大字에 해당하고, 一羊은 鷹(豸)이며, 두 아들의 행위에 관한 辭를 읽는 것은 口에 해당한다. 王充의 「論衡」, 「三才圖繪」 및 「五雜俎」에 神獸를 羊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事實의 傳說化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神判의 성질상 神獸는 方便的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羊에 국한될 필요도 없다. 古代에는 仁獸도 있고 瑞獸도 있고 靈獸도 있고 神獸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吉兆와 瑞祥을 告해 주는 것이었다.

後漢書인 「輿服志」는 獬豸, 神羊能別曲直이라고 적혀 있다. 獬豸란 鷹이지만 그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神羊이란 墨子가 말하는 羊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羊은 고대의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짐승의 하나였다. 거의 언제나 詳福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鷹가 正義, 潔癖의 짐승이라고 신앙되던 것과 같다. 羊은 太牢의 잔치(饗)에 바쳐졌을 뿐 아니라 善美, 進獻, 正義 등의 개념을 나타낼 때에는 羊의 상징으로 항상 古代 文字 속에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보면 다음과 같다. 羊이 들어간 글자는 모두 좋은 뜻을 가진다.

義字

「說文」에 己之威儀也從我羊이라 하였다. 즉 나(我)의 羊이 옳은 것이다.

善字도 마찬가지이다.

「說文」에 吉也. 從譆從羊善與美同意라 하였다. 즉 善이란 羊 아래에 있으니 좋은 것이다.

羞字는 「說文」에 進獻也從羊羊所進也從丑丑亦聲이라 했다.

羌字는 「說文」에 進善也從羊久聲이라 했다.

美字는 「說文」에 甘也, 從羊從大, 羊在六畜主給膳也라 하였다. 羊이 크면 아름다운 것이다.

文字의 구조는 고대사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羊에 대한 漢民族의 사상이 이러한 문자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墨子의 神羊思想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일본에서의 고마이누

일본의 민족종교라 할 수 있는 신도(神道)의 사원인 신사(神社)에 가면 '고마이누'라는 짐승의 像이 서있다. 이것을 한자로는 高麗犬, 狛犬 혹은 胡麻犬이라 쓴다. '神社의 守護와 裝飾의 의미를 겸한 한쌍의 獸形'(31)인 이 像이 언제부터 섰으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실로 흥미롭기 그지없다. 일본의 「神社大事典」에 의하면, 이것은 사자(獅子)모양, 혹은 개(犬)모양을 하고 있는데 재료는 나무, 돌 때로는 靑銅, 鐵, 陶製로 된 것도 있다. 木彫의 것은 彩色된 것과 안된 것이 있다. 보통 채색은 사자(왼쪽)는 금박(金箔)을 입히고 털은 群靑을 입힌 金色으로 되어 있다. 狛犬(오른쪽)은 은박(銀箔)을 입히고 털은 群靑을 입힌 銀色으로 되어 있다. 狛犬의 原形은 上代 漢韓의 方面에서 船載된 것으로 생각되며 처음

(31) 「神社大事典」, 58面.

에는 宮殿의 調度의 하나로 사용되다가 그후 神社, 寺院에 옮겨져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사자의 변형이라고 한다면 韓土에서 온 故 高麗犬이라고 말하고, 狛은 狛(狛)國(三韓의 屬)의 狛字가 訛用된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다.(32) 또 火闌降命(海幸彦)의 狗吠이나 神功皇后의 三韓征伐의 事蹟에 관련하여 狛犬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도 있으나 따르기 어렵다.(33) 첫째로 아마이누(アマイヌ)라고도 부르는 것은 天犬, 神犬이란 訓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집앞의 개'(戶前犬, 고마에 이누)라는 뜻으로 俗化시켜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도 俗說에 불과하다. 전래된 당초에는 문앞에 세워 鎭子와 除魔의 의미로 쓰였는데 후일에는 주로 神前, 神城의 守護의 의미로 殿舍의 안밖에다 놓이고, 神宝의 하나로 모셔졌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1) 양쪽 모두 이마에 외뿔(一角)을 가진 것, 2) 한쪽에만 一角을 가진 것, 3) 양쪽 다 뿔을 갖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입(口)도 1) 양쪽 모두 열고 있는 것, 2) 한쪽만 열고 있는 것, 3) 양쪽 다 다물고 있는 것이 있다. 연 입에는 玉을 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지는데, 실제로 玉과 鞠을 물고있는 것이 있다. 연 입과 다문 입을 阿吽에 準하여 陰陽의 象으로 설명하는 것은 佛教에서 왔다. 神社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國宝로 지정된 것도 적지 않다. 그 중 유명한 것은 滋賀縣大宝神社(木彫), 福岡縣宗像神社(石製), 愛知縣深川神社(陶製) 등이고, 寺院의 것으로는 東大寺 南大門의 石製獅子가 있다.(34)

Ⅵ. 한국에서의 해태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光化門)에는 해치 石像이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왜 거기 서있는지 별 관심도 없이 쳐다보거나, 언제부터인가 관악산(冠岳山)의 불기운(火氣)를 잡아 먹으라고 세웠다는 속설(俗說) 내지 속신(俗信)이 내려져 오고 있다. 왜 광화문의 해태(35)는 뿔이 없고 얼굴이 마치 제주도 하루방을 연상시키듯 주먹코에 방울 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엄하게 무엇을 방어하는 수호신(守護神)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웃음기 어린 정다움을 느끼게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 털이 구름같기도 하고 물결같기도 하며 꼬리가 따로 나와있지 않고, 왜 양쪽 자웅(雌雄)이 별 차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런 작품을 만든 작가는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등등 궁금한

(32) 「神社大事典」, 58面.
(33) 「神社大事典」, 58面.
(34) 최근 일본에서 小寺慶昭(ねずてつや), 「狛犬字事始」, カニシセ出版, 1994이 발간되었는데, 일본 各地의 고마이누를 조사하여 설명하였는데, 결론으로 東南亞에서 온 獅子文化의 日本的 表現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高麗犬 내지 狛犬이란 명칭에 대한 설명도 못되고 그 起源이 麃 혹은 獬豸와 연결된다는 점을 모르거나 무시한 빗나간 서술이라 생각된다.
(35) 해치라 할 것을 일반적으로 해태라 부르니 해태라 쓴다. 왜 해태라고 부르는지 근거가 불확실하다. 이에 관한 李圭泰氏의 설명 참조.

의문을 갖고 필자는 백방으로 문의하고 자료를 찾아 보았다. 놀라운 것은 금년이 서울定都 600年이라고 하면서도 文化財管理局에도 서울市 歷史편찬실에도 하나 쓰여진 자료나 연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불완전하나 筆者가 알아본 해태 石像의 설립경위와 이동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왜 광화문에 해태상이 섰느냐가 가장 큰 의문이다. 해답으로는 두 가지 가설(假說)이 가능하다. 첫째는 해태가 옛부터 정의(正義) 내지 바른 정치(政事)를 상징하는 신수(神獸)이니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 돌계단에도 해 세웠듯이 정문(正門) 좌우에도 해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장식물로 해 세웠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항간에 많이 퍼져있듯 경복궁이 화재를 당하니 관악산의 불기운을 삼키도록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사상에서 세웠다는 견해이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 작품이 언제 세워졌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해치상을 궁앞에 세운 것은 '정의의 동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현재 궁궐에 거처하고 있는 임금이 성군(聖君)임을 칭송하는 의미도 되고, 한편으로는 백관들이 궁궐을 출입할 때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경계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신하들로 하여금 해치가 세워진 자리에 이르면 말이나 탈 것에서 내리게 하였다. 「高宗實錄」 卷7 경오(庚午, 19) 10월조에 보면, 고종이 어느날 궁문을 나서다가 해치가 앉아 있는 그 안쪽에서 말을 타고 있는 신하를 보고 크게 노하여 호통을 치면서 꾸짖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게 처신하면서 어떻게 신하로서의 체통과 도리를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했다.[36] 조선일보의 이규태(李圭泰) 논설위원도 해태의 방화(防火) 풍수설은 어디까지나 풍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보면 이미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하기 이전에 이 해태석상을 궁 안에서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고, 18세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도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있던 남별궁(南別宮)에 해태 석상이 있어 그것을 경복궁으로 옮겨갔다고 했으며, 충청도 홍성 남양부 (南陽府)의 동헌 입구에도 해태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37] 그는 지금 것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명석수(名石手) 이세욱(李世旭)으로 하여금 새로 조각케 하여 세운 것이나 그 석수(石獸)를 세운 뜻은 풍수도참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38]고 잘라 말한다. 그는 "아마도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을 때 화재(火災)를 풍수도참설로 예방하고자 이 물짐승을 세웠다는 풍설이 나있었기에 물짐승에 강인부회하다 보니 해타(海駝)→해태란 말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다"[39]

---

(36) 허균, 「서울의 고궁산책」, 효림, 1994, 26면.

(37) 李圭泰, 光化門 해태, 「눈물의 韓國學」(이규태코너 1), 기린원, 1987, 143면 그리고 虎岩山의 해태, 「욕심의 韓國學」(이규태코너 4), 기린원, 1987, 206면.

(38) 이규태, 위의 책, 143면.

(39) 이규태, 위의 책, 142-143면.

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의 상징적 풍물이 되고 있는 광화문 앞의 해태상을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重修)할 때 당대 명인 이세욱(李世旭)으로 하여금 조각시켜 세워둔 것으로 본뜻은 곡직을 바로잡는 정치신념을 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데 중수중에 불이 잇달아 나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풍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능수능란했던 대원군은 이 해태상을 火山인 관악산의 불기를 막는 풍수적 괴수(怪獸)로 소문를 냈고, 그래서 해태가 불을 막는 짐승이라는 민속신앙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40)

중국문헌「이물지」(異物志)에 보면, 해태는 신선(神仙)이 먹는 멀구슬나무잎만 먹고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사악한 쪽에 대들어 물어뜯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외뿔짐승(一角獸)이기에 성질이 忠하고 청백하며 曲直을 능히 판별하는 짐승이라 하여 楚나라 때부터 行政과 司法의 理想的 상징으로 宮門이나 官門 앞에 세워두고 본을 받았으며 관복이나 관모에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최치원(崔致遠)의 첩(牒)에 보면 신라말에 해치부장(獬豸部將)이란 벼슬이 있었으며, 어사(御史)의 별칭을 '해치'라 했고, 근년까지 법관들이 썼던 검은 모자도 바로 해치관(獬豸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1)

이왕 광화문의 해태상에 관하여 그것이 오늘날의 위치에 서있는 경위에 관하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고종 2년에 당시 명석수(名石手) 이세욱(李世旭)에게 의뢰하여 만들었지만, 이세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형상의 해태상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정의의 상징물로서의 의미와 어느 정도 풍수적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진 조형물로서인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해태석상은 오늘날의 위치보다는 80~90년 앞선, 오늘날의 세종로, 당시 육조(六曹)거리인 의정부(議政府) 앞과 그 맞은편(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앞)에 각각 서있었다. 구한말의 사진을 보면 그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정도로 친근한 석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임금과 만조백관의 성원 속에 태어나 의연히 광화문을 지키던 이 해태상은 일제의 침략과 함께 슬픈 운명을 맞게된다. 조선조의 종말을 부릅 뜬 눈으로 묵묵히 지켜본 이 해태는 1923년 10월 어느날 저녁에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만다.(42) 그 무렵 일본인들은 부업공진회(1923년 10월)을 개최하느라 부산하였고, 한편 1916년 6월에 기공한 총독부 건물(1926년 완공)이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총독부 건물 공사로 경복궁 담이 헐리고 대궐터에 길이 뚫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해태상도 제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당시「동아일보」(1923. 10. 21)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었다.

---

(40) 이규태,「욕심의 한국학」, 206-207면.
(41) 이규태, 위의 책, 143면.
(42) 허균,「서울의 고궁산책」, 효림, 1994, 22면.

근년에 이르러 넘어가는 저녁 햇볕이 눈물에 젖은 옛 대궐에 비치고, 북악에서 넘어오는 쓸쓸한 바람이 너의 낯을 스쳐지나갈 때 말없이 우두커니 섰는 네 모양은 참으로 쓸쓸하였노라. 성이 헐린 터에 길이 되고, 임금이 있던 대궐터에 총독부가 새로 서는데 너만이 편안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춘풍추우 지키던 그 자리를 떠날 때에 네가 마음이 있다면 방울같은 눈매에도 응당 눈물이 흘렀으리라. 긴 세월동안 위엄있고 유순하게 경복궁을 지키고 섰던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매어 끌어갔으랴. 말 못하는 너는 시키는대로 끌려갔을 뿐이었다.(43)

그보다 조금 일찍 일본인으로 한국미(韓國美)에 심취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씨는 「改造」誌에다 '잃어지려 하는 한 조선 건축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광화문의 해체를 비판하면서 그 앞에 선 해태상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애석해 하였다.

아아, 문전에 안치된 두 개의 큰 해태여, 너희들은 잘도 왕국의 정문을 지켜주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조금도 그 모습을 흐트리지 않고 다가오는 자의 마음에 권위를 가지고 임했다. 그리하여 문에 알맞은 위엄과 확실성을 가지고 궁전에 보다 강한 아름다움을 첨가해 주었다. 너희들은 지금도 묵묵히 앞을 노려보고 있지만 너희 주인의 신상(身上)에 덮친 운명을 알고나 있는가? 물론 모를 것이다. 이미 그는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다. 오오,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움직여야 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이 어디로 철거되어갈 것인지, 나도 그것을 모른다. 아니, 철거하는 사람들조차 어디로 가져가는지 그날까지는 모를 것이다. 용서해다오. 나는 죄짓는 자의 모두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다. 나는 그 중표로 삼고자 지금 붓을 든 것이다.(44)

정말 해태상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근 2년이 지나 「동아일보」 기자는 총독부 청사 서편 담장 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본다. 그리고는 「동아일보」에 다시 이렇게 적었다.

너의 꼴을 보러 대궐 안에 들어가니 너는 한편 모퉁이에 참혹히 드러누워 있더라. 그것을 본 흰옷 입은 사람의 가슴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끝없이 일어나는 감회를 무엇이라 표현하겠느냐. 무슨 하늘도 못볼 큰죄나 지은 것처럼 거적자리를 둘러쓰고, 고개를 돌이켜 우는 듯, 악을 쓰는 듯 반기는 듯 원망하는 듯한 해치를 발견하고 가슴이 흐뭇하였다. 옛 주인이 경복궁 뒤로 밀려나가고 낯설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총독부 새집 앞에서 모든 학대와 갖은 구박을 다받은 해치의 신상을 염려하는 조선사람들이 많은 것을 그가 안다면 피나는 설움이라도 참을 듯하다.(45)

이렇게 수모를 당했던 해태상은 총독부 건물이 완성되자 그 앞으로 다시 옮겨져 갔다.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을 지키던 해치가 일제의 아성을 지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해치의 잘못이겠는가, 일본인의 잔인인가 한국인의 몽매인가를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가 하면 조선총독부 건물 바로 뒷편 경복궁 정원(근정전에 들어가는 永濟橋 옆)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지었다. 이 박물관(현재 「민속공예관」) 입구 좌우에는 또 한쌍의 해태가 섰다. 그것은 일본인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사뭇 광화문 해태와는 외형과 느낌이 다른, 한마디로 일본식 고마이누(高麗犬)의 상(像)이다. 고마이누에 대하여는 앞에 이미 설명하였거니와,

(43) 「동아일보」, 1923년 10월 23일자.
(44) 柳宗悅/朴在姬 역, 「朝鮮의 藝術」, 동서문화사, 1977, 184면.
(45) 「동아일보」 1925년 9월 15일자.

지금도 별로 이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이 버젓이 서있다. 마치 사자의 모양으로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한 마리는 입을 열고 표효하듯. 해방이 되고도 그대로 내려오다가 1961년 제3공화국에 이르러 광화문 건물이 복원되면서 해치상을 지금의 자리에 옮겨놓았다. 광화문 앞에 서있다는 것은 복원된 셈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완전히 옛자리에 복원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건물 앞 위치에 세종로 좌우로 세우기에는 오늘날의 도로교통상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엄밀한 옛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치와 관련하여 부수적인 문제가 또 제기되었다. 1983년 5월 광화문에 있는 중앙청(총독부 건물)에서 정부기관이 과천으로 옮기게 되니, 해태 석상도 따라서 과천으로 가야하느냐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고바우〉 만화는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싣기도 하였다. 과천으로 옮기느냐, 박물관에 넣느냐, 그대로 두느냐의 세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광화문이나 경복궁의 일부이기 때문이든지 지리풍수의 일환임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해태의 꼬리는 진미(塵尾)라 하여 사심(邪心)과 부정(不淨)을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 궁문을 드나드는 대·소 관원들은 이 해태의 꼬리에 손을 얹고 마음을 씻는 관습이 있었다.[46] 이규태 씨는 "그렇다면 광화문 해태는 일어서서 정부기관을 따라 과천에 가야한다. 광화문에 딸린 문화재이기에 제자리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과천청사 앞에 分身을 만들어 드나드는 대·소 관원들로 하여금 朝夕으로 '진미'(塵尾)하도록 권해보는 것이다"[47]고 적고 있다.

미술사학자 허균(許鈞)씨는 광화문의 해태상을 "온순하면서도 위엄이 늠름하고, 맹렬하면서도 공손이 넘치는 조화있는 용자(勇姿)"[48]로 평가한다.

필자도 이러한 이면적(二面的) 조화의 미를 갖춘 명작(名作)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처럼 명물은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법과 정의와 관련하여, 일각수(一角獸)로서의 뿔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수사상에로 너무 토착화(土着化)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관악산의 연맥(連脈)인 시흥(始興)의 호암산(虎岩山)에서 해태로 보이는 석상(石像)이 발견되어 이것을 소방(消防) 마스코트로 삼으려는 움직이 있었다.[49]

한국소방서연합회에서는 그곳에다 '한국 소방정신의 발상지'라는 표지판까지 세웠다.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에 의해 이 잘못된 표지판은 철거되었지만, 지금도 석상과 한우물은 그대로 있다. 관악구청에서 낸 「관악의 어제와 오늘」(1991)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46) 이규태, 위의 책, 143면.
(47) 이규태, 위의 책, 143면.
(48) 허균, 「서울의 고궁산책」, 26면.
(49) 「조선일보」 1985년 12월 17일자.

삼성산(三聖山)의 서쪽으로 뻗은 산마루에 길이 22m, 폭 12m되는 사시사철 변함없이 물이 고여 있는 큰 우물이 있으니 속칭 한우물, 용보(龍洑)라고 한다. 우물의 사면벽은 四塊石 모양으로 네모나게 다듬어진 돌로 둘러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연못같으나 예부터 큰 우물이라는 뜻으로 '한우물'이라 불리워 내려온다.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물의 양에는 변함없이 생수가 가득 고여 있다. 이 천정(天井)의 유래는 기우(祈雨) 또는 군사작전상 음료용 등으로 전해지나 우물곁 산마루에 석해태가 서있는 것으로 보아 소화용의 뜻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기우제는 「동국여지승람」에 호압산(虎押山)에 옛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한 못이 있어 날씨가 가물면 비오기를 빌었다"고 하였다. 古蹟조에는 '호암산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둘레가 1681보(步)이며 성 안에 큰 우물이 있는데 날씨가 가물면 비를 비는 기우제를 올린다'고 한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음료용이란 말은 임진왜란 때 적장이 진을 쳤던 자리가 많은 군인의 음료가 작진상 지대한 부담이므로 이 천정 부근일 것으로 예상된 데서 유래한 설일 것이다. 또 한 가지 군용설을 부여해 주는 자료를 보면 호압산에 古城이 있어 石築의 기둥이 1618척이라 했으니 城中에 수비군이 주둔했을 것도 예상되며 유사시에는 다수의 군인이 합세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로 보면 기우, 군용설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우, 음료용으로 쓰였다 함이 타당할 것이요, 유래는 경복궁 앞에 석해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이태조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풍수설에 의한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산중의 한 바위가 호랑이 형상과 같다하여 호암산(虎岩山이라고 불러왔던 山名을 지금의 호압산(虎押山)이라 개명하고 시흥리에 있던 호암사(虎岩寺)를 山上으로 개축하면서 절이름도 호압사(虎押寺)라고 명명할 것과 방화신(防火神)인 해태를 우물곁에 세운 것도 우물물로서 방화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큰 우물 동북쪽 100m 떨어진 돌성벽 안쪽에 돌로 조각한 해태상 하나가 동그마니 앉아 있다. 그 조각솜씨가 고졸(古拙)하며 매우 귀여운 모양인데 북쪽을 향해 앉아 있다. 이 해태상에 얽힌 전설로는 일찍부터 관악산 주봉의 뾰족뾰족한 모양새가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형세라 사람들이 이를 화염산(火焰山)으로 여겨오던 중에 조선왕조 초에 대궐터를 경복궁터로 잡을 때부터 의견이 분분하였다. 무학대사(無學大師)는 관악산 정면을 바라보고 절을 앉히면 관악산 화기가 뻗쳐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고,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은 남쪽을 향하더라도 중간에 한강(漢江)이 있으니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끝에 궁궐을 북악의 남쪽 기슭에 남면(南面)해서 앉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런데 경복궁에서는 과연 태종에 의한 방석의 난이라는 골육 상쟁의 난이 일어났고, 세조가 단종을 내몬 찬탈의 변이 있었으며, 또 경복궁에 자주 화재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고종 2년(1865년)에 흥선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탄 경복궁을 새로 세울 때 관악산의 화기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궁 앞, 광화문 좌우에 한쌍의 돌해태를 조각하여 세웠다. 이세욱(李世旭)이라는 이가 새겼다는 경복궁 앞 해태는 지금도 광화문 앞에 있거니와 이 시절에 이곳 호암산성 안 한우물 속에 구리로 만든 용(龍)을 던져 가라 앉혀서 그 용의 조화로써 관악산의 화기를 막게 하였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의 돌해태 한 마리는 그 조각 솜씨에 있어서는 경복궁 앞 한쌍의 돌해태 솜씨와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 시대에 설치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높은 산마루에 비바람에 씻기고 닳아서인지 호압산 해태는 한층 연대가 오래된 듯한 기품을 풍기고 있다. 전설을 미루어 생각하면 이곳의 한우물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 용보(龍洑)라는 전설도 그럴듯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호압산성과 한우물은 「동국여지승람」에서도 古蹟으로 다루고 있고, 또 지금도 한우물 언저리에서 삼국시대의 토기조각이 채집되고 있는 만큼 이 한우물은 고대부터 산성의 우물로서 그 수량(水量)이 무궁무진하였다는 데서 더욱 소중하게 여겨왔음에 틀림없다. 날이 가물면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다는 것도 이 한우물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한 가지 요인일 것이다. 천정(天井)은 현재는 구로구 소재이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50)

호압산의 석상을 광화문의 해태상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반대설도 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을 막는다는 민속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소방 마스코트나 소방 심벌마크가 못될 것은 아니지만 고증 측면에서 보다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호암산에서 발견됐다는 해태상은 해태가 아닌 석사자상(石獅子像)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증보동국여지승람」(增補東國輿地勝覽) 호암산편에 보면 이 산세가 범이 북쪽을 향해 달려들 것같은 형세라 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북쪽 모퉁이에 호암사(虎壓寺)를 지었고, 다시 그 북쪽에 활을 겨냥하는 궁교(弓橋)를 놓았으며, 다시 북쪽 10리 밖에 달려들지

(50) 「冠岳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 관악구청, 1991, 195-198면.

못하게 사자암(獅子庵)을 지었다고 했으니, 이 석상도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한 석사자(石獅子)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51)

풍상(風霜)에 마멸되기도 했기 때문에 외형(外形)은 가지고 해태다 사자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은 개(狗)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李泰鎭) 교수는 호암산이 호랑이가 북쪽 한양(漢陽)을 향해 곁눈질하는 형세이니 그 눈목에 희생물로 개를 형상화해 세웠다고 해석한다.(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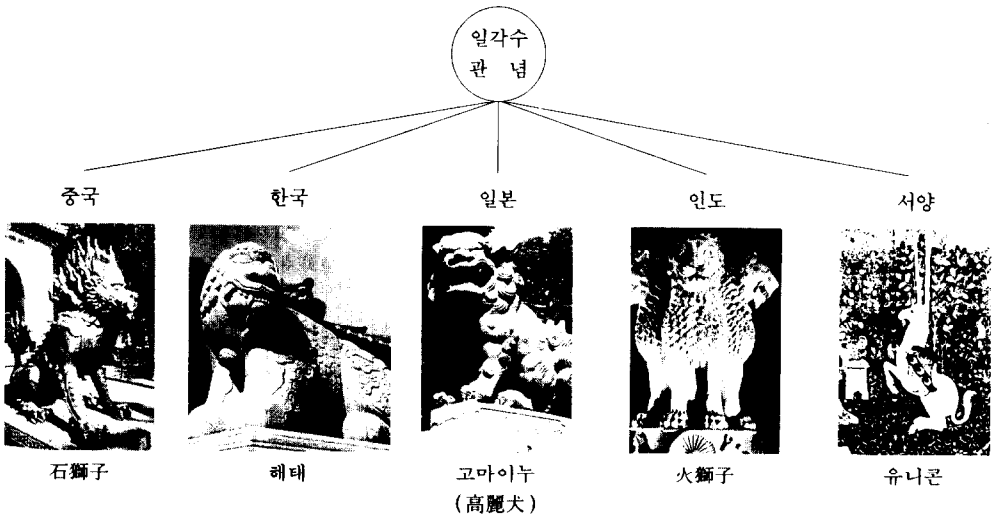
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암산에 가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즉 가는 길목에는 해태상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현지의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 석구상은 해태상으로 전하여왔었으나, 이곳으로부터 남서쪽 50m 지점의 한우물 조사발굴 때 조선시대 쌓은 석축에서 "석구지"라 음각(陰刻)된 장대석이 나왔고, 또 시흥읍지 형승조에 이곳 호암산 남쪽에 석견 사두를 묻어 개와 가깝게하고자 하였으며, 지금 현남 4리에 "사견우"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록으로 "석구상"으로 판단되었다.

북쪽을 바라보고 앉은 석구상 주위에는 자연암 네 개가 있고, 석구상은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발과 꼬리도 잘 묘사되어 있다".

다만 그 옆의 절 호압사(虎押寺)에는 최근에 세운 해태석상이 암수 한쌍 서 있었다.

이렇게 하여 종합적으로 해태 혹은 유니콘이라 불리우는 일각수에 관한 기원 내지 族譜를 도식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그 기원을 같으나 文化圈에 따라 모양도 변용되었고 의미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근본은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51) 이규태, 虎岩山의 해태像, 「조선일보」 1985년 12월 17일자 그리고 「욕심의 한국학」, 기린원, 1987, 206-207면.

(52) 서울대 총장 조완규(趙完圭) 박사도 同席에서 이 석상은 분명 개 모양이라고 했다 한다.

Ⅶ. 「본」이란 말

以上에서 우리는 法이란 한자어 속에 나타난 해태라는 짐승때문에 유니콘 설화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문화사 산책을 한 느낌이 든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法字라는 말이 공평과 신성(神性), 인간의 소송과 재판을 상징하는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漢字이지 우리의 말 한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장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 조상들은 法에 해당하는 순 한글말을 갖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田鳳德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法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어는 '본'이다. 法字를 '본받을 법'이라고 하고, 文法, 語法을 「말본」이라 하며 算法을 셈본이라 한다. 또 "法이나 慣習律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者를 '본데 없다'고 하니 한국에서의 法은 '본'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고 한다.(53)

田박사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라 眞興王 巡狩物管境碑에 적힌 碑文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黃草嶺碑와 摩雲嶺碑는 碑文의 내용, 所隨行官等이 동일하여 한쪽 碑의 마멸된 문자를 다른쪽 碑文으로 推讀할 수 있다.(54) 황초령비에 「及伐斬典喙部 分知吉之裏公欣平小舍云云」(點字는 磨缺을 補讀한 文字)이라고 적혀 있고, 마운령비에는 당해부분이 「及伐斬典喙部夫法知吉之裏內欣平小舍云云」(點子는 磨缺을 補讀한 文字)라고 되어 있어 「分知吉之」와 「夫法知吉之」(知는 尊稱, 吉之는 官名)와는 동일하고, 「分」과 「夫法」은 同音異義로 생각되는 고로 分音을 夫法의 反切로 보고 「法」을 「본」의 音字로 推想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이란 말이 悠久한 古代에 기원을 가진 固有新羅語라는 것이다.(55) '본'은 '본'보기, 즉 見本이며 模型이며 模範이며 理想이다.(56) 서양어로 말하면 Sein과 Sollen의 合致, 즉 라드브루흐(G. Radbruch)나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이 주장하는 Sollendes Sein 혹은 Seiendes Sollen과도 가까운 개념이라 하겠다.(57)

이러한 관념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中國, 日本에서도 공통적인 것 같다. 康宝忠은 「中國法制史」 上卷 1章에서 法字의 辭典的 起源을 '模範'에서 찾고 있다. 段氏의 「說文解字」 註에 「刑者罰皐也 易曰利用人以正法也 引伸爲凡模範之稱木部曰模字也 竹部曰範字法也 土部曰刑者 鑄器之法也」라고 되어 있다. 중국법의 권위자 에스카라(Jean Escarra) 교수도 중국의 法은 模型, Modéle이라고 파악하고 있다.(58) 일본에서도 법은 「ノリ」 즉 선언한다는 뜻도 있지만 「ノットル」 즉 「手本」이라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일본적 法관념도 模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53) 田鳳德, 「韓國法制史研究」, 서울大출판부, 1968, 214면.
(54) 崔南善, 新羅眞興王의 在來三碑와 新出現의 磨雲嶺碑, 「靑丘學叢」 2호, 69面 以下.
(55) 崔南善, 위논문, 69面.
(56) Dictionaire Corean-Française(韓佛字典), 1988면에는 '본'字를 Type, Modéle이라 해석하고 있다.
(57) A. Kaufmann.
(58) J. Escarra, *Droit Chinais*, 谷口知平訳, 「支那法」, 69面.

Ⅷ. 결 론

이 논문에서 다룬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가 쓰고 있는 法字의 유래에 관한 규명, 둘째 서양의 유니콘 전설과 해태의 상관관계이다.

첫째 法字의 古字 灋을 說文學者들은 모두 水, 廌, 去의 3合字로 해석하지만 文字學的으로는 水, 廌, 大, 口 즉 公平, 正義, 人間, 訟辭의 4合字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사실 여기에서 어느 說이 맞고 틀리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實在하지 않는 동물 廌 혹은 豸에 대한 해석과도 같이 어느 說이 맞고 틀림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설명의 가능성의 다양성을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의미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동양적 法思想의 폭을 넓혀준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서양의 유니콘(Unicorn)에 관한 설명은 일각수로서의 해태와 원래는 같은 것이 文化圈에 따라 變容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實在하지 않는 동물을 두고 일치한다 하지 않는다 단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이겠지만, 그 의미투사(意味投射)와 작용을 분석하여 볼 때 무리없이 공명되는 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두 규명을 통합하여 우리에게 法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서양의 Law, Recht, droit와도 통하는 의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래 담고 있는 의미를 규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법학 내지 한국법철학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작업에 法象徵學(Rechtssymbolik)[59]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

(59) 이에 관하여는 최종고, "法과 正義의 상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27권 1호, 1994, 90-110면.

〈Résumé〉

A Study of the Letter 法(Law)
—In Relation to Legal Symbolism

Chongko Choi*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the letter 法, which is pronounced *fa* in China, *ho* in Japan, *pop* in Korea with the same Chinese language. Because the Chinese characters were formed according to the outlookings of the things, the letter 法 also has its unique structure and meaning. The ancient miao(苗) tribe in China used the mystical animal unicorn(hsie-chie 鴈 or 獬豸) at the judicial court. According to the Chinese classics, the unicorn always goes to the guilty and butts him with the single horn. Therefore, the letter meaning law was formed originally as 灋 even though the abbreviated letter 法 is used since the late Han dynasty. The scholars interpreted the letter 灋 as the combination of three elements; 水(water), 鴈(unicorn) and 去(going). The letter this means the going of the unicorn like water, symbolizing equality(or equity) and divine authority.

In 1912, a Japanese scholar published an article maintaining the new interpretation of this letter. He argues, this letter in not composed of three elements, but of four elements. He intrepretes 去 not as going but as a combination of 大(man) and 口(mouth). According to his explanation, the letter 灋 represents the landscape of the court, a man speaking with a mouth for the equality, i.e. justice. He uses for the proof many old chinese letters written upon the vases and sacrifice tools dating Chu and Eun dynasties.

The precent writer investigates, from this point, the symbols of the unicorn in China, Japan and Korea. Furthermore, he compares the Asian symbols of the Chinese hsie-chie (獬豸), the Japanese Komainu(高麗犬) and the Korean hae-tae(해태) with the Western unicorn symbol. He concludes, the symbol is the same, even though the outlookings and interpretation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cultures.

Finally, the present writer reassures the meaning of Korean word *Bon*(본) signifying the law. The *Bon* is the model, the ideal reality, as G. Radbruch and A. Kaufmann defines law as the coincide of the ought(*Sollen*) and being(*Sein*).

This paper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legal symbolics for the research of Asian jurisprudence.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